

(3) 청수서원(淸水書院)-지봉사(芝峰祠)

광해군 때에 순천부사로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이수광을 추모하는 서원이다. 1692년 도내의 사람들이 발론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순천의 사람인 허서(許緒)·정백령(鄭栢齡)·정송령(鄭松齡)·조필문 등의 주도로 1693년 성의 서문 밖 난봉산 아래에 서원을 세우고 이수광의 호를 따 지봉사라 하였다. 그후 언제인가 청수서원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고(1729년 이후) 배향인도 이수광 1명이던 것이 이응기(李應耆)를 추배하여 향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868년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고 그후 별다른 복설의 움직임 없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원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 단지 금곡동 소재의 향교 뒤편 어디쯤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이수광(1563~1628)의 자는 윤경(潤卿), 호는 지봉, 본관은 전주이며 판서 희검(希儉)의 아들로 경기도 장단에서 출생하였다. 1582년 진사시를 거쳐 1586년 23세 때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616년(광해군 8)에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학교의 장려 및 공물의 감액 등 민정 전반에 걸쳐 뚜렷한 치적을 남겼다. 특히 그가 이때 직접 편찬한 순천의 읍지인 『증평지』는 조선시대 지방지 편찬사에 있어 한 전범(典範)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순천부사 이후 이조판서까지 올랐으며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실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되기도 하며 저술로서 『치봉유설』이 유명하다.

이응기(1594~1660)의 자는 군단(君端), 호는 취죽헌(翠竹軒), 본관은 전주이다. 1633년(인조 11)에 문과에 합격한 뒤 여러 청요직을 거쳤으며, 1646년에 왕에게 여색을 경계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5년에 걸친 유배생활을 하였다. 풀려난 후 이조참판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